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홍지 외동양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미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료	1753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7월 12일 금요일	Issue No.	1753
		Date	July 25, 1969: Fri.

닉슨대통령, 세계 일주여행 출발 미.소 회담에 응할 용의 있다

(콜로 아가나 7월 25일 밤, 공동) 닉슨대통령은 25일, 아시아 5개국과 루마니아 혁명예외의 출발에 앞서, 콜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미에프전쟁을 종결하는데 임이 있다면, 소련 수뇌와의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 라고 의향을 명백히 하였다. 닉슨대통령은 또 어떠한 회담이 동북지역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유익하며, 소련측이 전략병기의 현실적인 권위에 대해서 회담할 용의가 있스런 미.소 수뇌회담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닉슨대통령은 5개월전의 2월 25일에 부트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본부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소련 수뇌와의 회담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때에도 "양구한 결과를 뒤집어 놓기 위한 것이라면" 장래 소련 수뇌와 회담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도 닉슨대통령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수뇌회담은 "꼭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만일 동남아시아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소련 수뇌회담나모조코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의 혁명예외 주요한 목적에 대해서, 닉슨대통령은 미에프전쟁종결후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에 관해서 이해를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미에프전쟁에 대해서 닉슨대통령은, 이번의 여행중에 새로운 미군철퇴계획을 발표할 작정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8월중에는 철퇴계획도 확정적인 결정을 한다고 말하고, 하이방문중에 뱃에서 만겨주남미에프전쟁대사, 에이부담스 남미에프전쟁포로군사령관과 회담하여, 미에프전쟁의 현상을 협의할 것을 명백히 하였다.

스스로의 군사노력 강화를 아시아에 요청

닉슨대통령은 금주, 아시아 제국이 스스로의 군사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에 너무 의뢰하지 않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하였다.

루마니아 방문

또 닉슨대통령은 사회주의국인 루마니아를 방문하는 것은 미.중관계의 정본상태를 하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부정하고, 또 이방문이 소련을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닉슨대통령의 미소 수뇌회담에 대한 발언은, "적당한 시기가 오면 회담을 실현시키겠다" 라는 기본자세의 표명이라고 본다. 뎀스윌드의 원동 미국의 진보파중에는, 이번의 혁명예외, 루마니아로부터 받을 비뚤, 모스크바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닉슨대통령이 지적한 미에프전쟁, 중동전쟁, 핵전략병기의 제한의 3대 과제에 대해서, 미소간에서 아직 기본적인 의견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뇌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 것이 현상이다.



아폴로 11호 무사히 귀환 달 여행 완전한 성공

(미국군함 오넷함상 7월24일밤, 에이미) 인류가 달에 보낸 사자는 24일, 다 지구에 귀환하였다.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은 미동부여름시간오우형시 35분 대기권에 재돌입, 하와이시간동 50분에 따뜻한 토리네시아의 바다에 착수하였다. 착수지점은 하와이 남서 950마일, 북부의 우머가 앞섬기때문에 최초의 예정지보다 동쪽으로 250마일 더멀리된곳으로 확정되었다. 이때문에 암스트롱선장은 육로제산기를 써서 진도를 변경하였다. 착수지점변경에대해서 비행사의 손이 요구된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착수후 뒤집어지

5척내지 6척의 마트를 타고, 착수후 사령관은 넘어졌다. 이것은 아폴로 7, 8대에도 일어났것으로, 승무원에는 아무 이상이없다. 오넷과 동함상으로부터 출동한 레이블러로부터 사령관이 목적지역도 잠시 사령실에서부터 코신이 업었다. "이곳은 유-스은, 아폴로 11호" 라고 권제 중앙소는 계속 반복하였다. "오-케이"라고 쓰디어 암스트롱선장의 소리가 들어왔다. "아직 안정제2의 상태에잇는데, 서서히 수정중" "안정제2"라는것은 뒤집어진 위치를 말하는것이다. 11분후 3비행사는 사령관의 위치를 고쳤다. "안정제1" 이라고 암스트롱선장은 보고하였다. 착수의 순간은 대평양에서는 밤이 개인적이였다.

부스 대통령도

닉슨대통령도 메인 미항공우주국장관, 라자-스국장관, 아폴로8호의 노-벤비행사등과 감람에 나역서 4상양경으로 착수하는것을 응시하였다.

달에서 수집한 귀중한 월면표본 휴-스톤이

(유-스은 7월25일밤, 에이미) 아폴로11호의 우주비행사가 목숨을걸고 수집하여온 귀중한 달의 표본을 닌 상자가 미동부여름시간으로 25일정오경, 유-스은근처의 에인은 중간기지에 도착, 미항공우주국직립과 인명의 엄밀한 도취하여 유-스은우주중앙소의 달 귀환대행연구소에 운반되었다. 회수를 목적한 메인우주항공국장관도 오넷으로부터 이상마를 따라서 귀환하였다. 중앙으로부터 연구소까지에는 경위차를 선주6대의 항공국의 운송차가 계속하고, 회수를 보안관의 와가 도취한다는 대행일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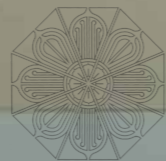
세계 9개국의 과학자에

원면표본은 26일, 진공실에 너모, 7개의 반생의 우머가입서진후에, 기라리고잇는 과학자들과 육리장을 중간에두고 대면한다. 다음에 표본군에 나누어져 에이실업을한후, 세분되어 세계 9개국, 142인의 과학자에 보내진다. 이미한 원면표본의 분석에의해서, 달의 기원이 평배이 될것이다. 또 지구를 오염할 미생물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분람상의 표본을 사용하여, 주공리, 배양된 인체조직, 식물, 새우, 벌머지등에대해서 30일내지 50일간의 장기실험이 계속된다.

3비행사 제-차신체검사에 합격

3비행사는 전원 건강이고, 24일 오넷함상에서 거행된 제차신체검사에 통과하였다. 3비행사 들은 다 이동라미소에들어간 카펠데이의사의 진단을받고, "3비행사는 다 우수하고, 의견로 대단이코라" 라고 발표하였다. (제3편에 계속)

(제 2 편)



(제 3 편)

각리실에 들어서 2+개월 아침에 진주만에

아폴로 3비행사를 해운 항공모함 오넷은 26일 아침 8시45분 진주만의 부라보선장에 도착, 3비행사는 이동라미소에들어가, 아외어 시민의 환영을받는다. 벨스주지사, 라시오노우루시장 부처가 열석하여 환영식이 거행되는데, 동선장에서 9시범부터 거행될 예정, 이 환영식때문에 니릿스 대문이 오전6시부터 일반에 개방된다.

켄네디의원이 자동차사고 동승의 여성 사망

(뉴욕 7월22일밤, 공동) 에드워드.켄네디의원은 18일밤, 매자여행중 자동차 수난사고를 일으키고 동승의 여성이 사망하였는데, 매사추세츠 에드가타운경찰은 21일, 동의원을 보고도 하지안모 손전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사고에는 일반인이 이해할수잇는 여리 가지 점이잇고, 장차 민주당대통령후보로 지목되고잇는 동의원의 정치적장태에도 영량이 잇을 모양이다. 미국의 레베리온, 신문은 이 사고를 크게전했는데, 켄네디의원이 경찰에서 발표한 성명에의에는, 권관제자가 입을 닫고잇다. 그러나 신문은 여러가지의 모순되는점을 지적하고 잇으며, 현지보도에는 다음의 점이 포함되어잇다. 켄네디의원은 18일오후 11시15분경, 마사도에 돌아가는도중 사고를 일으킨것이나, 당국의 추정으로는 자동차 전락의 시간은 오전1시정이다. 1. 동의원이 붙어잇어서 2기로나 접어온 도중에는 권관제잇는 집이 적어도 5집이나잇으며, 그중 2집은 현장으로부터 50메터이내로 진동도 쳐잇었다.

1. 동의원은 사고난 다음날아침, 법률가를 포함하는 2명을 동행하여 마사도로부터 연락선으로 착바우이데모에 건너가, 선장에서 사고발견자의 이야기들듯고, 마사도로부터, 경찰에 갔다. 또 켄네디의원은 그후 기자단의 질문을 일절 거부하고잇다.

유체 혈액에 알코홀 분

(매사추세츠 에드가타운 22일밤, 에이미) 그 매리.조 카미쿠니양의 감시물란 밀크의사는 22일 "유체의 혈액분석의 결과, 알코홀분이 발견 되었는데, 양은 적고, 갓했 2, 3 정도 마신 상태이다" 라고 말하였다. 또 에드가타운경찰 아리나시장은 22일, 사고발생직전 못지안관보가 켄네디 의원의 승용차를 목적하였다. 목적지점은 켄네디의원이 "길을 잘못 들었다" 라고만 고차점으로 동지안관보는 시간을 오전 40분이라고 말하고잇다고 발표하였다. 켄네디의원은 사고발생의 시간을 오후 11시 15분이라고 말하고잇는데, 경찰의 추정으로는 오전 1시로되어잇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자동차사고로 동승의 여성을 죽게하고, 이미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어잇는 에드워드 켄네디의원은 23일, 매사추세츠주차량등록계로부터 운전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았다.

판결, 켄네디의원에 집행유예 2개월

(매사추세츠 에드가타운 7월25일밤, 에이미) 18일의 자동차사고로 동승의 카미쿠니양이 사망한 후, 사고현장을 떠난 죄로 기소되어잇는 에드워드.켄네디의원은 25일, 에드가타운지방법관 소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 2개월의 판결을 받았다. 법정에는 일본인기자들포함한 50 명의 보도진이 잇었다. 켄네디의원은 재판종료후에 "오늘밤, 레이디오.레베리온을용해서 매사추세츠주에 설명한다" 라고 말하였다. 동의원의 원모담은 "우리가 기소에대해서 정당방위할수 잇다고 진언하였는데, 켄네디의원은 유죄를 주장하였다" 라고 말하고잇다. 법정에는 조순부인, 의영의 스미스씨, 우인 토리스틀씨가 입회하였다.

(제 3 편)

중동 공중에서 전투

(텔아비브 7월24일밤, 에이피) 넷서 애람연합대총명이 애람연합(에지트) 군은, 1967년의 중동전쟁에서 입은 지역을 탈퇴할 용의가 되어있다고 경고한후, 24일 스에스산악을 따라오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애람연합양군이 충돌이걸린 공중의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스라엘측은, 동공군제트기대와 방공부대가 애람연합군용기 7기를 격추하고, 단 2기에 손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있었는데, 애람연합측은 이스라엘기 4기를 격추, 3기를 마손하였다고 밝히고, 애람연합 공군기를 1기 손실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오기나와의 미사일기지 활동 정지

(나아 7월25일밤, 공중) 재오기나외국사령부는 22일, 오기나외에있는 나이키.어류리와 육의 미사일기지수색소가 급변중에 편성변경을하고, 활동을 정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오기나외의 미사일부대는 육군제30보병여단소속의 육, 나이키.어.류리 각각 2개대대 8기지공군 313사단소속 페이스2개중대 4기지인데, 이번의 대상이 되는것은 제30보병여단의 육, 나이키.어.류리기지, 그 중 몇개소가 활동정지가될는지, 또 어느기지가 대상이될는지 아직 확실치않다.

미국과의 협력을 소련이 희망

(모스크바 7월22일밤, 공중) 소련을 방문중인 압두미림미부대총명은 21일, 고스이간.소련수상과 드레트빈에서 회담하였다. 동시에는 회담후, 고스이간수상은 "소련과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호무하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고스이간수상은 나에게 미국에 가지고가는 별세지를 주었다. 동수상은 소련이 평화유위에 미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있는것을 미대총명과 미국민에 전하도록 나에게 요청하였다. 소련은 실질적인 문제에서 미국과 성실이 협상하고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있는것에 틀림없다.

이슬라 스키

★본방 반이져사는 아라스카에서 미육군에 시주중인 상사 약주중들의 포병물반야, 지단탈에 하미스카에가서, 생소한 아라스카의 산악정계의 아름다움을 구경중이라고하는데, 그곳의 기루가 박여사에 맞는지 전에있는 술관정세가 정지되어 미육군안아게지내코제시라는 기쁜 소식이 들어왔다.

★본방 한인양모원에 계시는 권진태씨는 안질도입하여, 지난 21일 원요일에 권병원에 입원수술하고, 치료중이라고는데, 앞으로 수일후에는 퇴원할 예정이라고한다.

★그날과 김치도 유명한 유여나여사의 70회탄생일(집간)을 축하하기 위해 9남매의 자녀들이 베푼 성대한 집간잔치는 지난 20일 베베라니아가의 일본인상공회관에서 손님 가족 친지를 합하여 6백여명이 모인가운데 성대이 거행되었다. 집간을 마지만 유여사가 피겨에 사운 여머가지 일찍을 칭찬하는 만수도있었고, 생일 케익, 또 손자녀들이 축하하는 의미로 진정한 돈으로도 받은 메이등의 진정을 축하한 색을 보였다. 맛있는 음식과 술모수로 모두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한다. 유여사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축하도있었다.

★한국국민 감독을 위해서 고미송만박사께서 만든 고생과 수고를하고계시는데에 아외이공국인의사로서 리박사를 지지하고, 또 그의친코를 지지하여 한국국민을 위해 만든 도움을 준 민원리씨를 포상하기 위해, 한국의 중앙대학에서는 동춘장 임영신여사의 명의로 동리의사에게 감사장을 보내왔다. 미의사를 포상하기 위해 새로조직된 한국문화협회 외에서는 민영한씨부인 (애들 린여사)를 의장으로 카아마.입은.오렘의 아름다운 회의실에서 지난 20일 정오 30분부터 맛있는 음식과 성대한 주오그림으로 포상식을 성대이 거행하였다. 손노티여사, 오중정권총영사의 축하와 함안타여사의 춤, 문마생의 춤등도 축하를 많이 드렸다.

